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

김순식**

• 목 차 •

I. 머리말

II. 선맥 부흥과 계승

III. 정법 수호와 수행정진의 가풍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9월 1일, 월산문도회가 주최하고 대각사상연구원이 주관한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삶>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 『大覺思想』 제32집 (2019년 12월), pp.17-47.

한글요약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서 금오(金烏) 문중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근대사회에 단절되었던 선맥(禪脈)을 부흥시키고, 그것을 계승하였다. 역불정책의 시기였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선맥은 한말 경허(鏡虛)에 의해서 부흥되었다. 경허의 선맥은 만공(滿空)에게 계승되었으며, 만공의 제자인 보월(寶月)이 그것을 이어받았다. 보월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금오에게 법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만공이 금오에게 법을 전해 보월의 뒤를 잇게 하였다.

둘째, 금오 문중은 1954년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에 마무리되는 이른바 ‘정화불사’를 통하여 정법 수호와 수행 정진의 가풍과 기틀을 확립하여 불교계의 모범이 되었다. 금오문중은 많은 수행자들을 배출하여 포교와 불교대중화 사업에 진력함으로써 승가 본연의 면모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금오문중의 정법 수호와 수행 정진의 가풍 확립은 1954년 소위 ‘정화불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금오는 전국 비구승대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에 선임되어 정화불사를 앞장서서 지휘하였다. 정화불사는 불교의 정법을 수호하고 계율을 지켜나가기 위해 일어난 비구승들의 계율 수호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계율을 파괴하는 대처승들의 대처식육에 저항한 한국 불교의 정통성 회복운동이었다.

셋째, 금오문중은 불교대중화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금오의 제자들 가운데 월산(月山)과 범행(梵行), 월남(月南), 탄성(呑星) 등은 불교계의 거목으로 성장하였으며 1천명의 많은 제자들은 금오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금오문중의 노력은 한국 근현대불교에서 비구승들이 주류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단의 수행풍토를 확립하고, 불교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제어

금오문중, 금오, 경허, 만공, 보월, 월산, 선맥, 정화불사, 대처승, 비구승

I. 머리말

금오(金烏) 태전(太田 : 1896~1968)은 한말 격동기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살다간 한국 근현대 불교계에 큰 족적을 남긴 선승이다. 그의 이름은 태전이고, 법호는 금오이며, 처음 이름은 태선(太先)이었다. 근현대 불교사에서 중요한 고승들의 행적을 조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적이 오늘 불교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투영되어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사상과 행적을 계승한 문도들이 불교계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를 살다간 고승들의 업적은 잘 밝혀지지 않았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다. 첫째, 근현대 불교사가 조명되기 시작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연구자의 숫자 또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문자를 중시하지 않은 선불교(禪佛敎) 전통으로 인하여 고승들의 행적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문집을 비롯한 문헌자료 발굴이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셋째, 불교 교단과 해당 문손들이 고승들의 행적과 사료 발굴 그리고 현장 사업을 소홀히 한 탓도 있다고 하겠다. 지금부터 근현대 고승들의 위업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특정 고승의 행적을 지나치게 미화하여 본 모습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인물이든 공(功)과 과(過)가 있기 마련인데 공은 지나치게 과대포장하고 과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¹⁾

금오문중의 성격과 위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금오 문중은 근대사회에 조선시대 단절되었던 선맥(禪脈)을 부흥시키고, 그것을 계승하였다는 점이다. 억불정책의 시기였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선맥은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경허(鏡虛)에 의해서 부흥되었다.²⁾ 둘

1) 최병현, 「정화운동의 과제와 한계」, 『법보신문』, 2010. 12. 8.

째, 금오 문중은 해방 이후 1954년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에 마무리되는 이른바 ‘정화불사’를 통하여 정법 수호와 수행 정진의 가풍과 기틀을 확립하여 불교계의 모범이 되었다. 셋째, 금오 문중의 많은 승려들이 지금도 불교 대중화를 위하여 국내외 사찰과 포교당에서 진력하고 있다. 이러한 금오 문중의 가풍은 많은 사법제자(嗣法弟子)들을 배출하여 불법을 흥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승가 본연의 면모를 확립하고 있다.

먼저 선맥의 부흥 부분을 살펴보면 경허의 선맥은 만공(滿空)에게로 이어졌으며, 만공의 법은 보월에게 전수되었다. 보월의 제자였던 금오는 보월의 갑작스러운 입적으로 미처 건당(建幢)을 하기 전에 스승을 잃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만공은 당시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漢巖)의 지도 아래 선수행을 하고 있던 태선을 불러와서 금오라는 법호를 내렸다. 그리고 금오에게 보월의 법을 잇게 하여 덕숭 문중의 제자로 인가하였다.³⁾ 다음으로 정법 수호와 수행 정진의 가풍 확립 부분은 1954년 소위 ‘정화불사’가 시작되면서 금오는 전국비구승대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에 선임되어 정화불사를 앞장서서 지휘하였다. 다음 해 세수 60의 나이에 대한불교조계종 부종정과 감찰원장으로 추대되어 정화불사에 진력하였다. 이처럼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 정화불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정법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청정한 승풍을 확립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정화불사는 불타의 정법을 수호하고 계율을 지켜나가기 위해 일어난 비구승들의 계율 수호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계율을 파괴하는 대처승들의 대처식육을 거부한 한국 불교의 정통성 회복운동이었다.⁴⁾

금오의 선풍 진작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1947년 지리산 칠불선원에서 금오는 수좌들과 함께 견성성불을 위한

2) 최병헌, 「近代 禪宗의 復興과 鏡虛의 修禪結社」, 『德崇禪學』 창간호, 1999년, p.75.

3) 김방룡, 「금오선사의 생애와 당시의 불교계」,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 자료집』,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pp.18-25.

4) 금오선수행연구원 편찬,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 편찬에 즈음하여」, 『金烏스님과 佛敎淨化運動』 2,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용맹정진에 돌입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금오는 10여명의 수좌들과 함께 동안거 결재를 시작하였지만 얼마되지 않아 칠불선원에는 공양거리가 떨어지고 말았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좌들은 칠불선원을 떠나고자 하였다. 금오는 고심 끝에 수좌들에게 동안거 중 반은 탁발을 하고 반은 용맹정진을 하기로 하였다. 수좌들도 동의를 하여 수행정진을 계속하다가 금오는 어느 날 함께 수행하던 수좌들에게 “용맹정진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받기에 이른다. 이 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수좌들에게는 칠불선원을 떠날 것을 명했다. 이것은 생명을 건 결사의 정신으로 청정수행의 가풍을 확립하고자 하는 한 사례라 하겠다.⁵⁾

이러한 가풍은 불교대중화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금오의 다음과 같은 말 속에 잘 드러난다. “불자(佛子)는 먼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세속 얘기를 하지 말 것이며, 부처님이 행하심이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중이라면 정법(正法)을 두호(斗護)하고 정법을 사유하여 중생에게 이로움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⁶⁾ 금오의 제자인 성림(聖林) 월산(月山)과 범행(梵行), 월남(月南), 탄성(呑星) 등 상좌 49명과 손상좌·증손상좌·고손상좌에 이르기까지 그 문손 거의 1천명⁷⁾에 달하는 승려들은 금오의 이러한 유훈에 따라 불교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1974년 성림(聖林) 월산(月山)이 발간한 『금오집』을 이용하였다. 이 문집은 2010년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로 증보 발간되었다. 증보판을 발행한 월서는 발간사에서 증보판 발행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1974년에 사형인 월산이 발행한 『금오집』은 당시 열악한 출판 환경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료로 인해 범문 중 상당 부분을 미번역한 채로 사중(寺中)에서 출간되었다. 그는 『금오집』에 수록되었

5) 금오선수행연구원 편찬,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2,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pp.50-53.

6) 金烏 太田, 『金烏集』, 禪學院, 1977, p.116.

7) 1천 명이란 숫자는 금오대선사의 문집인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말미에 수록된 「金烏 太田 法譜」에 나타난 상좌의 수를 헤아려 보니 모두 984명이었다.(금오대선사,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마음달, 2010, pp.407-428).

으나 번역하지 못한 계송들을 모두 다시 번역하고 큰 스님께서 남기신 서신과 사진들을 보강 수록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⁸⁾ 월서는 이 보다 2년 앞선 시기에 금오의 정화운동에서 활약상을 담은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을 금오선수행연구원에서 2권으로 발간하였다. 이러한 책들을 바탕으로 2011년 10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는 금오의 행적을 8개 주제⁹⁾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2016년에는 김상두(金相斗 : 靑願)가 『금오태전 선사연구(金烏太田 禪師研究)』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¹⁰⁾을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불교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금오의 행적이 그가 입적한 지 반 백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금오 선사의 일생을 태어나서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7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금오가 평생에 걸쳐서 몸소 보여주었던 자리행의 측면과 이타행의 측면으로 나누 고찰하였다.¹¹⁾

금오의 부촉을 받은 월산(月山)은 만상좌로서 오랜 세월 금오를 시봉하면서 함께 수행하였다. 1997년 월산이 입적하자 사제(師弟)들과 상좌 그리고 문도들은 그의 열반 1주기를 맞이하여 유고와 법문 녹음 테이프

8) 월서, 「발간사 -금오집 36년 만의 재출간」, 위의 책,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9) 이 날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방룡, 「금오선사의 생애와 당시의 불교계」,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 자료집』,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9.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신성현, 「금오의 계율관」

신규탁, 「금오 태전의 선사상」

이덕진, 「금오 ‘간화선법’에 대한 고찰」

종 호, 「금오선사의 심사상 이해」

김광식, 「불교정화운동에 있어서 금오선사의 역할」

김경집, 「금오선사의 불교정화운동과 불교사적 의의」

박해당, 「금오선사의 불교인식과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

10) 金相斗. 『금오태전 선사연구(金烏太田 禪師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6.

11) 金相斗. 위의 논문, pp.8-9.

를 풀어서 『월산선사법어집(月山禪師法語集)』¹²⁾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은 선사의 2주기를 맞아 초판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판으로 발간되었다. 『월산선사법어집』은 ‘본지풍광(本地風光)’, ‘월산가풍(月山家風)’, ‘과수공행(把手共行)’ 3편으로 구성되어었는데 선사의 사상과 법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집이다.

금호문중은 한국 근현대불교사에서 이 같은 공적만 남겼던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면모도 있었다. 1974년 5월에는 불국사 주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임 주지였던 범행은 신임 주지 황진경(黃眞璟)의 발령을 반대하고 주지 인계를 거부하며 총무원을 상대로 제소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¹³⁾ 또한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대립 발생하여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 중심에 금오의 상좌인 월탄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한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⁴⁾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든 모두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밝은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두운 부분이 감추어지지만 때가 되면 그 부분이 조명될 때도 있다. 근현대 사회에서 금호문중의 선맥 부흥과 계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으며, 과(過)에 비해 공(功)이 크다고 하겠다. 필자는 우리 불교사에서 금호문중의 위상과 성격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을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맥 부흥과 계승

근대불교계는 조선왕조 억불정책으로 승려들의 도성출입마저도 금지된 피폐한 상황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개항 이후 서양 종교인 천주교와 개신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

12) 月山門徒會,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8.

13)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한국불교현대사』, 시공사, 1997, p.582.

14) 김순석, 「98년 개혁을 역행한 또 한 번의 개혁 소동」, 『법보신문』, 2008. 12. 17.

제국 정부는 불교계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02년에 사서관리서(寺社管理署)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방치하여 왔던 불교계의 관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국내사찰현행세칙 36개조를 제정하였다. 국내사찰현행세칙의 내용은 원흥사를 대법산(大法山)인 수사찰(首寺刹) 즉 불교계의 총종무소(總宗務所)로 삼고 각 도(道)에 중법산(中法山) 16개소를 두어 사찰 사무를 통괄하게 하는 것이었다.¹⁵⁾ 일제강점기가 되면 불교계의 상황은 더 악화된다. 조선총독부는 불교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찰령(寺刹令)과 사찰령시행규칙(寺刹令施行規則)을 강행하였다. 이 두 법령의 내용은 조선총독부가 불교계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게 한 악법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30본산 주지 임면권을 조선총독이 장악하고, 불교계의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었다.¹⁶⁾ 당시 불교계는 이같은 행정관청의 통제를 받았고, 일본 불교가 유입되어 승려들이 결혼하고, 고기 먹는 대치승들이 늘어나서 해방 이후 정화불사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

한말 불교계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경허는 단절된 선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선풍 진작에 나섰다.¹⁷⁾ 그는 스승없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후에 해인사에서 결사를 단행하여 대중들에게 선풍을 진작시키고 교화에 힘썼다. 경허의 제자인 한암(漢巖)이 쓴 행장에 의하면 그의 행적은 이렇게 전한다. ‘경허는 1899년 가을 영남 가야산 해인사로 자리를 옮기고 칙지(勅旨)가 있어 장경(藏經)을 인출하고 또한 수선사(修禪社)를 설립하여 마음 닦는 학자를 거주하게 하니, 대중들이 모두 화상을 추대하여 종주(宗主)로 모셨다. … 취산 통도사와 범어사, 호남의 화엄사, 송광사는 모두 화상께서 잠시 머무시던 곳이다. 이로부터 선원을

15) 정광호, 『韓國佛敎最近世百年史編年』,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16)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pp.51-58.

17) 최병현, 「근대 선종(禪宗)의 부흥과 경허(鏡虛)의 수선결사(修禪結社)」, 『덕숭선학』 창간호, 2000.

사방에 개설하고 발심한 납자들이 감화를 입어 구름일 듯하니, 계시는 동안 부처님 명을 빛내고 사람의 안목을 열어 주심이 이와 같이 융성한 때가 없었다'18)라고 하였다.

경허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의 오도(悟道)를 인가해 줄 스승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만큼 당시 불교계의 선문(禪門)은 막막했던 것이다. 이른바 선가(禪家)의 범통은 이미 단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고심 끝에 자신의 도통연원(道統淵源)을 정리하여 밝히고자 하였다.19) 경허가 일생에 걸쳐 선(禪)을 부흥시키려 한 노력은 제자들에게 계로 전해진다.

선 부흥을 위한 경허의 염원은 제자 만공에게 전해졌다. 만공은 1871년 전북 태인에서 태어났다. 1884년 경허의 소개로 천장사(天藏寺)에서 태허(泰虛)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1895년 깨달음을 얻은 후 경허를 만나 만공이라는 법호를 받았으며, 경허를 따라 범어사 계명암(鷄鳴庵) 선원(禪院)에서 하안거를 마쳤다.20) 경허의 법을 받은 만공은 1905년 덕숭산에 금선대(金仙臺)를 짓고 납자들을 제접하였다. 만공은 근세 한국불교계의 선원(禪院) 체계를 확립한 선승이자 선학원 운동을 전개한 개혁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덕숭산을 중심으로 40여 년간 선풍을 진작시킨 결과 근대 한국의 선불교를 크게 부흥시켰다. 그는 한국불교계에 있어서 하나의 큰 법맥을 형성함으로써 덕숭산문(德崇山門)의 확립자가 되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21)

태선은 1896년 전남 강진군 병영면 박동리에서 아버지 동래정씨 용보(用甫)와 어머니 조씨(趙氏) 사이에서 2남 3녀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다. 나이 16세 되던 1911년 가형(家兄)으로부터 글공부를 게을리 한다는

18) 漢巖, 「先師鏡虛和尚行狀」, 『鏡虛集』(『韓國佛教全書』 11, 654下-655上).

19) 김지건, 「鏡虛禪師再者」, 『德崇禪學』, 한국불교선학연구원, 1999, p.17.

20) 만공문도회, 「滿空禪師行狀」, 『滿空法語』, 1982, pp.298-309.

21) 오경후, 「鏡虛·滿空의 法脈과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 『동학연구』 26, 한국동학학회, 2009, p.40.

이유로 매를 맞았다고 한다. 금오는 그까짓 글공부만 잘해서 무엇하느냐고 하면서 그 길로 집을 나와서 출가 사문이 되었다.²²⁾ 무엇이 16살의 태선으로 하여금 출가 사문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을까? 그것은 국권이 상실된 암울하던 시기 태선이 강진 백련사에서 한 승려와의 만남에서 연유하였다고 한다.²³⁾ 태선은 그 승려에게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승려는 그 답을 들려줄 사람은 금강산 마하연에 있는 도암(道庵) 선사뿐이라고 하였다. 이에 태선은 도암 선사를 찾아 걸어서 금강산 마하연으로 떠났다. 그는 결국 마하연에서 도암 공현(巨玄)을 은사 및 계사로 하여 득도하였다. 그는 도암으로부터 ‘이 뿔고’의 화두를 받아 언제나 참구하게 된다. 이후 태선은 마하연 선원에서 3년을 보내고 안변 석왕사 내원암에서 3년간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26세 때인 1921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선안거를 마치고 한암을 만나게 된다. 태선은 1923년 그의 나이 38세에 충남 예산에 있는 보덕사를 찾아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만공의 제자인 보월 성인(性印)을 만나게 된다. 보월을 만난 자리에서 태선은 그 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다음 같이 털어 놓는다.²⁴⁾

시방세계 두루 돌아보니	透徹十方界
없고 없으며 없다는 것 또한 없구나.	無無無亦無
저마다 모두 이 모습이니	箇箇只此爾
뿌리를 찾아도 또한 없을 뿐이다.	覓本亦無無

이 계송(偈頌)을 들은 보월은 태선이 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인가를 하였다고 한다. 보월의 제자가 된 태선은 약 2년간 보월의 문하에서 용맹정진하였다. 하지만 1924년 12월 12일(음력) 보월은 갑작스럽게 입적하게 된다. 태선은 아직 보월에게 건당(建幢 :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22) 金烏 太田, 「行狀」, 앞의 책, 『金烏集』, p.184.

23) 위와 같음.

24) 김방룡, 앞의 논문, pp.15-17.

전하는 전법의식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스승의 다비식을 치른 태선은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가게 된다, 이 사실을 들은 만공은 제자를 월정사로 보내 태선에게 결재를 마치고 자신을 찾아오라는 전갈을 보낸다. 이 소식을 들은 태선은 해제가 되자 곧바로 만공을 찾아가게 된다. 이듬해인 1925년 2월 15일 덕숭산(德崇山) 정혜사(定慧寺)에서 만공은 다음과 같은 계승으로 태선이 자신의 법을 이은 보월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태선에게 금오라는 법호를 주었다.²⁵⁾

덕숭산맥 아래서	德崇山脈下
지금 무늬없는 인을 전하노니	今付無文印
보월은 계수나무로 내려오고	寶月下桂樹
금오는 하늘 끝까지 날으네	金鳥徹天飛

만공은 태선에게 금오라는 법호를 내림으로써 자신의 법을 이은 덕숭문중의 일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금오는 약 3년간 서울 대각사에서 백용성이 주관한 화엄경 강의에 참석하여 용성을 시봉하였다고 한다.²⁶⁾ 이처럼 경허와 만공의 영향을 받은 후학들은 격동기와 암울한 시기를 사는 동안 정법(正法)을 수호하고자 했으며, 아래로는 중생의 삶까지도 외면하지 않았던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자 하였다.

금오는 1940년 초부터 창씨개명이 시작되자 직지사에서 조실로 10여명의 수좌들을 이끌고 있던 서울의 선학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일제는 선학원 수좌들에게도 창씨개명을 시도했으며 황군위문금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주지는 선승들을 제외하고 대처승들만을 앉히자 사찰은 날로 황폐해져갔다. 이러한 모습을 본 금오 선사는 청정수행을 위한 참선결사를 이루기 위해 심산유곡으로 두타행을 떠나고자 하였다. 그는 처음 출가한 금강산 마하연선원을 찾았다.²⁷⁾ 당시 마하연선원에는 공부하고

25) 金鳥 太田, 앞의 책, 『金鳥集』, p.186.

26) 김광식, 앞의 논문, 「불교정화운동에 있어서 금오선사의 역할」, p.246.

있어야 할 수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에 그는 다시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금오는 스승인 만공의 사형인 수월을 찾아 만주로 떠난다. 만주에서 수월을 만나 한 동안 정진하던 금오는 끝내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마하연선원을 거쳐 안변 석왕사에 들렀다. 석왕사에 여장을 풀었던 금오 선사는 석왕사 조실이었던 환공으로부터 한 청년을 소개받는다. 문하에 제자를 두는 것을 꺼려하였던 금오 선사는 한 청년의 돈독한 신심과 환공 선사의 부탁으로 쾌히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 청년은 금오 선사를 평생 모실 것을 다짐하고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도봉산 망월사에 도착하여 스승과 제자는 함께 정진에 들어갔다, 청년이 전 날 밤 등근 달이 산 위에 떠있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들은 금오 선사는 그에게 월산이라는 법명을 내려 주었다. 이후 월(月)자는 금오 문중의 돌림자로 이어지게 되었다.²⁸⁾

III. 정법 수호와 수행정진의 가풍

금오는 불교계 이른바 불교계 정화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근현대불교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불교계 정화의 시원을 대개는 1954년 5월 20일 이승만의 담화를 기점으로 잡고 있다.²⁹⁾ 최근 연구에서도 그 기점은 금오가 1927년부터 3년간 백용성을 시봉하면서 화엄경 강의에 참석하였던 것이 향후 정화불사를 이끌었던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³⁰⁾ 그런데 금오 문중에서 발간한 책에서 정화운동의 시작 시기를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가 들어와서 대처식육 풍습이 만연하게 된 시점을 정

27) 금오선수행연구원 편찬, 앞의 책,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 2, pp.46-48.

28) 금오선수행연구원 편찬, 앞의 책,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 2, pp.48-49.

29) 김광식, 「불교 '淨化'의 성찰과 재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p.383. ; 김순석, 「대한불교 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의 성립 과정」,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2014, p.382.

30) 김광식,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 2011, pp.148-149.

화운동이 시작된 계기로 보고 있다. 국권을 상실하자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세력을 뻗쳐왔고 일본 불교의 대치식육도 이 틈을 타서 한국 불교계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국의 비구 승단은 그 본연의 정통성을 고수하지 못한 채 극히 일부 수행 승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치승으로 탈바꿈하고 말았다.³¹⁾ 정화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1954년 5월 이승만 담화 발표이지만 그 원인은 일제 침략에서 찾아져야 한다.

해방 이후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려는 비구승들의 노력은 1947년부터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曼庵) 송종헌(宋宗憲)을 중심으로 결성된 고불총림(古佛叢林)으로 이어진다.³²⁾ 만암은 일제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자기 혁신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불교계의 현실을 비판하고 참된 불법을 널리 펴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발원에서 고불총림을 결성한다는 취지를 밝혔다.³³⁾ 고불총림은 당시 혁신 계열에서 부정하였던 대치승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구승을 정법중(正法衆)이라 하고, 대치승을 호법중(護法衆)이라 하여 포교·교육 등 수행승을 지원하는 일에 종사하게 한다. 그리고 대치승은 상좌를 두지 못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³⁴⁾ 6·25전쟁이 진행중이던 1952년 선학원의 승려 이대의(李大義)는 당시 교정이던 만암에게 비구승들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찰 몇 개를 할애해달라고 건의한다. 만암은 실무진에게 이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실무진들은 교정의 지시에 따라 통도사·불국사 등에서 회의를 가지고 동화사·직지사·보문사·신륵사·내원사 등 18개 사찰을 비구승들의 전용 수행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³⁵⁾ 이 소식을 들은 비구승들은 분노하였다. 그 까닭은 통도사·해인사·송광사 등 삼보 사찰

31) 금오선수행연구원 편찬, 앞의 책,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 1, p.86.

32) 김광식, 「고불총림과 불교정화」,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5.

33) 송만암, 「호남 고불총림 결성 성명」, 『만암문집』, 백양사 고불총림, 1999, p.244.

34) 위의 책, pp.238-240.

35) 김광식,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p.327.

을 비롯해서 본사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⁶⁾ 당시 불교계 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경우의 다음과 같은 회고³⁷⁾에서 잘 드러난다.

전국의 대가람이 경치 좋다는 이유로 향락을 찾는 유흥객의 소굴이 되고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는 먼지가 해를 두고 쌓여 발등이 묻히는데, 법당한 어두운 구석에는 죽은 쥐가 썩어서 냄새가 코를 찌러도 명주 바지저고리에 양단 조끼를 걸쳐 입고 호기를 부리던 절 주인은 도무지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아낙네들의 꼴사나운 내의가 도량 안에 어지럽게 걸려서 바람에 펄럭이고 어린애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도 주육(酒肉)을 팔고 주정뱅이들에게 법당을 내어주어서라도 돈만 생기면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다. 어찌다 공부하는 수좌(首座)가 날이 저물어 찾아들면 이맛살을 찌푸리고 입맛을 다셨다. 심한 자는 걸망을 찢고, 옥설을 퍼부어 내쫓았다. 수좌가 하루 밤을 잘라고 한두끼 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은 화제가 될 만한 특별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이 어처구니없는 절 주인들은 ‘스님’이라는 존칭을 깎듯이 반기를 원하면서 두려운 줄을 몰랐다. 수좌들은 발 붙일 곳이 없었다.

위의 글은 왜 불교계에 정화가 필요한 지 그 사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모든 대처승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출가하여 승려가 된 목적이 불도를 깨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독신 비구승들은 전국 사찰에 발붙일 곳이 없는 현실에서 정화불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금오의 정화불사 시작은 이승만의 담화발표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강석주의 회고에 의하면 금오는 1953년 5월 태고사(지금 조계사)에서 주지회 의가 열렸을 때 선학원 조실이었던 금오를 초청하여 법문을 청하였다고

36) 김순석,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의 성립과정」, 『인문과학논총』 22집,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pp.148-150.

37) 釋鏡牛, 「和同佛事に 대한 異議」, <대한불교>, 1965. 6. 13.

한다. 이 자리에서 금오는 종정의 지시대로 비구승 수도 도량으로 정한 사찰을 넘겨주도록 부탁하고, 다음과 같은 법을 설하였다고 한다. “전생에 지은 죄를 알려면 금생에 받은 과보를 볼 것이며, 내생에 받을 일을 알려면 금생에 짓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³⁸⁾라는 계송으로 타락한 대처승들을 경계하였다고 한다.

금오의 제자인 장이두의 회고에 의하면 정화불사가 일어나기 직전 금오는 대구 관음사의 조실로 있었다. 그 무렵 금오는 젊은 소장 승려 3명과 대구에서 고령 가는 길목인 옥포에 금련사(金蓮寺)라는 토굴(土窟)에 머무르고 있었다. 당시 함께 수행하였던 장이두의 다음과 같은 회고에서 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그 때 우리 생활에 물질적 추구는 없었다. 밥은 탁발해서 먹고, 옷은 지어서 입고, 연료는 산에서 주워서 불을 지피면 된다고 보고 어찌하면 정진을 열심히 하여 성불할 수 있는가. 그 뿐이었다.³⁹⁾

비구승들은 출가 승려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행공간을 할애해 줄 것을 당시 종단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대처승 측에 요구하였지만 이마저 묵살되고 말았다. 이 당시 선학원에 머물고 있던 금오와 비구승들은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와중에 1954년 5월 21일 이승만의 정화에 관한 담화가 발표되었다.⁴⁰⁾ 담화문의 요지는 이렇다.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는데 일본 승려들은 대처식육을 함으로써 교리가 변질되어 우리의 전통 불교와는 융합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일본 불교의 풍습을 따라 결혼을 한 대처승들은 친일 승려들이니 절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⁴¹⁾ 이승만은 일본 불교가 대처식육을

38) 강석주·박경훈 공저, 『불교근세백년』, 민족사, 2002, p.207.

39) 장이두, 「金蓮寺土窟」, 14, <해동불교> 1990, 김광식, 앞의 논문,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pp.150-151 재인용.

40) 「李大統領第一次諭示」, 佛敎淨化紛爭資料,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8, 민족사, 1996.

전파시킴으로써 한국 불교의 전통을 말살하였다고 보았고 대처승은 친일 승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이다. 이후 1954년 5월 21일 첫 담화⁴²⁾를 필두로 1955년 12월 8일까지 모두 8차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⁴³⁾

이 담화가 발표되자 비구승 측은 1954년 6월 24일과 25일 불교정화추진발기회와 교단정화운동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⁴⁴⁾ 그리고 8월 24일과 25일에는 제1차 전국 비구승대표자대회가 선학원에서 개최되어 정화추진위원 및 대책위원을 선정하였다.⁴⁵⁾ 이어서 비구측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선학원에서 제2차 전국 비구승대회를 열고 기존의 기구와 종헌을 부정하고 새롭게 조계종헌을 제정하고 결의사항을 채택하였다.⁴⁶⁾ 주요한 결의 사항은 ‘대처승은 승적에서 제거할 것’, ‘대처승은 호법중으로 할 것’, ‘교권은 비구승에게 환원할 것’ 등이었다.⁴⁷⁾ 비구승들의 이러한 결의에 대해 대처승들은 종래의 입장에서 많이 양보하여 삼보 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비구승에게 수도장으로 제공하며, 불교 발전을 위해 분종할 것을 천명하였지만 호법중이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⁴⁸⁾

그런데 이 제2차 전국 비구승대회에서 종조가 태고 보우에서 보조 지눌로 바뀌었다. 이 대회에 참석하였던 교정 만암은 이것을 환부역조(換父易祖)라고 표현하면서 정화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백양사로 내려가 버렸다.⁴⁹⁾ 만암은 한국 불교의 뿌리인 종조를 부정하고 새종조를 세우는 것은 불교계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대하였다. 만암 교정의 사퇴의사 표시에 비구

41) 위와 같음.

42) 위와 같음.

43) 김순석, 앞의 책,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p.385.

44) 「한국불교정화의 투쟁경위서」,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제68권, 민족사, 1996, pp.52-80.

45) <조선일보>, 「帶妻僧을 反對 比丘僧大會」, 1954. 8. 26.

46) <동아일보>, 「倭僧精神一掃 比丘僧大會서 決議」, 1954. 9. 28.

47) <조선일보>, 「佛敎界 紛爭의 裏面」, 1954. 11. 28.

48) 위와 같음.

49) 금오선수행연구원 편찬, 앞의 책,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 1, pp.115-116.

승 측은 11월 3일 선학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종정에 하동산, 부종정에 정금오, 아사리에 김자운을 선출하였다.⁵⁰⁾

이후 비구승 대표로 이청담·하동산·정금오·윤월하 등은 1954년 10월 11일 경무대를 방문하여 이승만에게 불교정화를 위한 강력한 담화를 다시 내려 주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이승만은 11월 4일자로 ‘왜색종교관 버리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⁵¹⁾ 이러한 제2차 담화로 탄력을 받은 비구측은 대처측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감행한다. 이 담화가 발표된 지 15일 만에 이승만은 또 다시 담화를 발표한다.⁵²⁾ 거듭되는 담화에 힘입은 비구승들은 1954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00여명이 조계사에서 전국 비구·비구니 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로와 을지로를 지나 광화문을 거쳐 경무대로 향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⁵³⁾

정부는 비구·대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1955년 2월 4일 문교부 장관실에서 비구측의 이효봉·이청담·박인곡·윤월하·손경산 등과 대처측의 권상로·임석진·송병영·김상호·이화응 등이 만나 사찰정화수습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⁵⁴⁾ 이들은 이 자리에서 승려자격 8대 원칙⁵⁵⁾이 합의하였다.⁵⁶⁾ 당시 불교계를 관할하던 주무 부서인 문교부는 비구승 자격 조건을 갖춘 승려의 숫자를 1,819명이라고 발표하였다.⁵⁷⁾ 1955년 7월 11일 문교부는 비구·대처 각각 5명으로 사찰정화대책위원회를

50) 김순석, 앞의 책,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p.266.

51) <경향신문>, 「倭式習慣 버려라 李大統領 佛教에 談話」, 1954. 11. 6.

52) <서울신문>, 「불교계 정화 희망 -李 대통령 순리 해결을 중용」, 1954. 11. 19.

53) <동아일보>, 「紛爭解決呼訴 比丘僧들 열지어 景武臺로」, 1954. 12. 15.

54) 한국불교승단정화사편찬위원회, 『韓國佛教僧團淨化史』, 대구: 大譜社, pp.283-284.

55) 8개 조항은 1)독신자, 2)삭발염의자, 3)불구가 아닌 자, 4)백치가 아닌 자, 5)3인 이상의 단체 생활을 하는 자, 6)殺·盜·淫·妄의 4대 犯戒를 하지 않는 자, 7) 술과 담배·고기를 먹지 않는 자, 8)25세 이상인 자 등이다.

56) <동아일보>, 「難題는 財團歸屬 우선 僧侶資格에만 合意」, 1955. 2. 6.

57) <동아일보>, 「比丘派 佛教教徒會結成 斷食 四일째의 僧侶들 瀕死 狀態」, 1955. 6. 13, 어떤 자료에는 비구승의 숫자를 1,189으로 추산한 것도 있다(佛教淨化紛爭資料,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8권, p.84.

구성하였다.⁵⁸⁾ 이들은 7월 16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대처승 대표 5명이 전원 불참하여 유회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 전날인 15일 회의에서 5:3으로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⁹⁾ 비구측은 전국 승려대회에서 새롭게 확정한 승려 자격 8대 원칙에 입각하여 새롭게 총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⁶⁰⁾ 비구승 측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한 대처승 측은 표결 직전에 회의에 참석하였던 이화응·국묵담·원보산 3명의 승려가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비구승 측은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백지 투표지를 남기고 퇴장한 3명을 반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5:3으로 가결을 선포하였다.⁶¹⁾ 후일 대처측에서는 이 표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였다.⁶²⁾ 아무튼 개표 결과에 따라 비구측은 8월 1일부터 승려대회를 개최한다.⁶³⁾ 당국은 대회 첫날은 진행을 저지하였으나 이튿날부터는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8월 2일에 승려대회에서는 총무원 측 교정과 간부에 대해서 불신임을 결의하고 전문 10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중헌을 통과시킨다. 이 날 선임된 총무원의 간부는 다음과 같다.⁶⁴⁾

 정 : 하동산
총 무 원 장 : 이청담
총 무 부 장 : 고경덕
교 무 부 장 : 김상호
재 무 부 장 : 박기중
감 찰 원 장 : 정금오

58) <조선일보>, 「自律的으로 連日協議기로 佛敎淨化對策委, 어제 첫 會合」, 1955. 7. 14.

59) <조선일보>, 「佛敎淨化委會 第三次는 流會」, 1955. 7. 17.

60) 김광식, 앞의 책,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p.476.

61) 앞의 <조선일보> 기사, 「佛敎淨化委會 第三次는 流會」.

62) <동아일보>, 「比丘僧側 控訴 僧侶大會 無效判定에」, 1956. 6. 22.

63) <동아일보>, 「僧侶大會를 強行 集會 許可 없어서 場內 騷然」, 1955. 8. 3.

64) <조선일보>, 「集會許可 없이 會議를 續行 僧侶大會, 第二日엔 任員 改選」, 1955. 8. 4.

감찰원 부원장 : 김서운

이 승려대회는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결정하였지만 이 대회는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승려대회가 끝난 다음날 이승만은 ‘왜색승려는 물러가라’는 제7차 담화를 발표하여 비구승들의 승려대회에 힘을 실어 준다.⁶⁵⁾ 거듭되는 대통령의 담화에 힘입어 비구승들은 대처승들로부터 사찰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혈사태를 일으키기에 이른다.

1955년 하반기부터 정화불사는 물리적 충돌에서 법정공방으로 국면이 바뀌게 된다. 대처측은 1955년 8월 전국승려대회 및 불교정화대책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56년 6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는다.⁶⁶⁾ 비구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⁶⁷⁾ 서울 고등법원은 불교계의 정통이 비구측에 있느냐, 대처측에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비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⁶⁸⁾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넘어갔고, 대법원은 1960년 11월 24일 비구승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발표되기 전 17일부터 전국에서 모여 든 비구·비구니 약 3백여 명은 ‘불법에 대처승 없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500여명의 비구승들은 23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하였다. 비구승들 가운데 일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비구측에 불리하게 내려지면 순교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렸다.⁶⁹⁾ 대법원은 대처측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재심하도록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⁷⁰⁾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배경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데 있었다. 대처측은 비구측을 관변 단체로 규

65) <동아일보>, 「倭色僧侶는 물러가라 -이 대통령 불교문제 언급」, 1955. 8. 4.

66) <동아일보>, 앞의 기사, 「比丘僧側 控訴 僧侶大會 無效判定에」.

67) 위와 같음.

68) <조선일보>, 「“正統派는 比丘側” 서울 高等法院서 佛敎紛爭에 判決」, 1957. 9. 19.

69) <동아일보>, 「斷食시작 五백명 比丘僧」, 1960. 11. 24.

70) <경향신문>, 「大法院서 高法으로 還送 帶妻僧側의 「淨化委決議無效確認」 訴訟」, 1960. 11. 24.

정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태를 부정하였다. 대처승 측은 비구·대처승 분쟁이 이승만 정권과 결탁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독재정권이 무너졌으므로 종단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¹⁾

대법원의 판결이 대처측의 승소로 내려지자 비구측 승려들은 법정에 난입하였고, 이 가운데 333명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다.⁷²⁾ 이날 법정에 진입한 비구승 가운데 6명은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대법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할복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⁷³⁾ ‘할복 6비구’로 불리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젊은 승려들이었다. 성각(性覺 : 양주 자재암, 29세), 월탄(月誕 : 해인사, 24세), 진정(眞靜 : 여주 구곡사, 25세), 도명(道明 : 구례 화엄사, 33세), 도헌(道憲 : 화엄사), 성우(性愚 : 양주 자재암, 35세) 등이었다. 할복 6비구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치료를 받은 후에 감옥에 갈 수 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월탄은 금오의 상좌로 4개월간의 옥살이 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동화사 내원암으로 금오를 찾아갔던 상황을 이렇게 술회하였다.

“그래, 그래.” 이 늙은 중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했구나. 이제 네 모든 업장이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래 감옥살이는 견딜만 하더냐? 그 때 월탄의 대답은 이러했다. 염염보리심(念念菩提心) 처처안락궁(處處安樂宮)이라는 생각으로 스님께서 내려주신 ‘이 뿔꼬’ 화두를 벗삼아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독방 감옥이라 고요하여 참선 정진하기가 좋았습니다. “허허 타고난 중놈이구나.”하시며 기뻐하시던 금오 스님은 장삼 자락에서 돈을 꺼내 월탄 수좌에게 주었다. 그 때 아직 병석에서 회복되지 않은 제자의 치료비로 주는 돈이었다.⁷⁴⁾

71) 김광식,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pp.335-336.

72) <동아일보>, 「잇달은 亂動에 철추」, 1960. 11. 25.

73) <조선일보>, 「佛敎紛爭 割腹 騷動」, 1960. 11. 25.

74) 금오선 수행연구원 편찬, 앞의 책,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 2, pp.251-255.

위 대화에서 우리는 정법수호를 위해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는 제자와 그것을 타고난 승려라고 격려하는 스승의 면모에서 금호문중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스승은 정화불사의 선두에서 비구승들을 진두지휘하였고, 제자는 목숨을 걸고 스승의 행보를 뒷받침하였다. 6비구의 할복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 부처님의 정법정신을 되살려달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⁷⁵⁾ 이 사건이 법정을 모독한 사건이었다면 6비구의 감옥 생활은 더 오래 되었을 것이고,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불교계 상황은 또 바뀌게 된다.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군사정권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정국을 장악하고 불교계에서 법원에 계류 중인 75건에 달하는 소송을 일체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⁷⁶⁾ 군사정권은 불교계의 분쟁 수습을 위해 불교재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불교재건위원회는 양측에서 추천한 자 가운데서 종교단체 심의위원회가 제청한 자 5명과 심의회에서 추천한 자 3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발족 후 1개월 내에 불교재건비상총회를 구성하여 모든 분쟁을 수습하기로 하였다.⁷⁷⁾ 불교재건위원회는 비구·대처 양측에서 각각 15명씩으로 불교재건비상총회를 구성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불교재건비상총회는 2월 22일까지 새 종헌을 만들기로 합의를 보았고 종명·종지 등 제반사항은 합의를 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승려 자격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당국에 일임하였다.⁷⁸⁾

문교부는 승려 자격을 사찰에 독신으로 상주하면서 수도와 교화에 전념하면서 가족 부양에 책임이 없는 자만을 승려로 인정하였다.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한 권한을 가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한다고

75) 위의 책, p.99.

76) <동아일보>, 「佛敎紛爭 裁判 中止를 지시」, 1961. 10. 22.

77) <조선일보>, 「끝없는 佛敎紛爭」, 1962. 1. 10.

78) <조선일보>, 「宗團構成案 채택」, 1962. 3. 1.

규정하였다. 결국 승려 자격 문제는 대처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에서 1962년 4월 비구·대처가 함께 참여한 통합종단이 탄생하게 된다.⁷⁹⁾ 통합 종단의 종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며, 종헌에 신라 도의 국사를 개창조로 하고, 고려 보조국사를 중천조로 하며,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한다고 천명하였다. 종정에 비구측 이효봉을 총무원장은 대처측 임석진을 선임하고 종단의 주요 보직은 비구·대처가 양분하였다.⁸⁰⁾

금오는 정화불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던 1956년 서울 강남 봉은사를 맡아 직접 살림살이를 챙기기도 하였다. 이어서 속리산 범주사와 지리산 화엄사를 맡아 가람을 수호하는 한편 도제양성(徒弟養成)에 진력하였다.⁸¹⁾ 1958년에는 종단의 여망에 의해 종책의 총책임자인 총무원장을 6개월 정도 맡았으나 곧 사임하고 수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참선수행에 매진하였다. 1961년에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6차 세계불교대회에 참석하여 불교계의 현안과 미래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다.⁸²⁾ 1967년 금오는 속리산 범주사 조실을 맡았는데 문도와 납자(衲子)들이 운집한 가운데 사자후를 토하여 종풍을 선양하였다. 금오는 입적을 앞둔 어느 날 월산, 탄성(吞星), 월만(月滿), 월고(月古), 월성(月性) 등의 문도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묵묵히 있다가 대중들을 돌아보며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펼쳐보였다. 이 때 제자 월산은 이렇게 견처(見處)를 보였다고 한다.⁸³⁾

문득 참모습 깨닫고 보니	忽覺本來事
부처와 조사 어느 곳에 있는가	佛祖何處在
뱃 속에 하늘과 땅 본래 감추어져 있으니	肚裏藏乾坤
몸을 돌려 사자후를 하노라	轉身師子吼

79) <조선일보>, 『佛敎 單一宗團 구성 六名의 임원을 選出』, 1962. 4. 7.

80) 위와 같음.

81) 금오선수행연구원 편찬, 앞의 책,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 2, p.63.

82) 위와 같음.

83) 금오선수행연구원 편찬, 앞의 책,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 2, p.62.

세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쉬지 않도다.

不立
不捨
不休⁸⁴⁾

월산이 이렇게 적어 올리고 물러서서 세 번 예배하자 금오는 다시 대중을 둘러보고 이렇게 말했다. “제반사를 월산에게 부촉하노라.” 월산은 거듭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위하여 더 좋은 말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無)로 종(宗)을 삼고 기타사(其他事)는 너에게 부탁하노라.” 금오는 그 순간 벽에 걸린 불자를 가리키고 다시 월산을 돌아보았다.

이것이 금오가 월산에게 내린 전법식이었다.⁸⁵⁾ 한국 불교계 정화운동의 주역이며 간화선의 법통을 경허, 만공, 보월로부터 이어받은 금오는 월산에게 가풍을 전한 뒤 1968년 10월 8일(음력 8월 17일) 입적에 들었다.⁸⁶⁾

금오 선사의 법을 이은 월산은 1912년 함남 신흥군 원평면에서 부친 경주최씨 흥규(興圭)와 모친 노(盧)씨 사이에서 3남 2녀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다. 1944년 도봉산 망월사에서 금오를 은사로 출가한 이래 조계종 총무원장, 신흥사, 동화사, 법주사, 불국사 주지를 거쳐 원로회의 의장을 지냈다. 그는 경허·만공·보월·금오로 이어지는 선맥을 계승한 뛰어난 선승이었다. 그는 1974년 불국사에 선원을 열어 제자들을 받아들여 선맥을 전수하는데 진력하였다. 그는 만공에게서 받은 화두 “이 뭇고”를 평생 간직하고 수덕사가 본산인 덕숭 문중의 후예로서 도함산 자락을 지키면서 한국 불교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⁸⁷⁾

월산의 행적 가운데 금오문중의 성격을 보여주는 행적 몇 가지를 소개

84) 월산문도회,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9, p.365.

85) 앞의 책, 『금오집』, p.189.

86) 금오대선사, 앞의 책,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p.393.

87) 월산문도회, 『행장』, 앞의 책, 『月山禪師法語集』, p.364.

해볼까 한다. 그는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불국사에 선원을 개설하고 수좌들을 받아들여 한국 선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먼저 청정하고 엄정한 수행 가풍을 보여주는 「수행자의 뒷모습」이란 범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이렇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서 출가했지만 평생을 거친 옷과 거친 음식으로 살았다. 그리고 가실 때는 사라쌍수 아래서 가사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 어른은 아무 것도 남긴 것이 없다. 오직 삼의일발(三衣一鉢)이 전부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에게 불멸의 감로법을 남겨 천년만년 그 가르침을 빛내고 있다. 그러나 죽을 때도 왕관을 쓰고 산 사람을 순장(殉葬)해서 함께 묻힌 왕자(王者)들은 어떤가. 사대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남은 것은 허명(虛名)과 비웃음뿐이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뒷모습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를 모른 까닭에 저지른 바보같은 것이다.⁸⁸⁾

다음으로 「지구종말(地球終末)의 날에는 무엇을 하려내고」에서는 이런 요지의 범문을 하였다. “옛날 속담에 ‘먹던 밥을 세 번이나 뱉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쟁을 하다보니 숟가락을 들었다가도 밥도 먹지 못하고 일어서기를 몇 번이고 했다는데서 유래된 말이다. 이렇게 힘든 세상이라면 운문 화상이 말한 ‘날마다 좋은 날’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1년 365일 가운데 좋은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겸호(兼好)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길일이라도 악을 행하면 반드시 흉하고, 악일(惡日)이라도 선을 행하면 반드시 길하다. 길흉이란 사람에 달린 것이지 날짜에 달린 것이 아니다. ... 60년을 살아야 평생이 아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평생이다. 하루를 살아도 평생이고, 10년을 살아도 평생이다. 그런데 만약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지 않으면 평생을 허망

88) 월산문도회, 「수행자의 뒷모습」, 앞의 책, 『月山禪師法語集』, pp.276-277.

하게 산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법문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월산은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한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공부하는 것은 최후의 날이 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여러분은 부디 집으로 돌아가거든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화두를 들고 마음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월산은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사부대중의 여망에 따라 총무원장과 원로회의 의장 등의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하였다. 1970년에는 불교·천주교·성공회·원불교·유교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창립한 한국종교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언론을 통해 중생을 깨우치고자 『법보신문』을 창간하여 초대 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삶이 건잡을 수 없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시간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다. 존재의 실체를 확연하게 깨달았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월산은 태어나도 이 자리, 죽어도 이 자리,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 말로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였다. 그는 평생을 대중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어 주다가 1997년 8월 5일 홀연히 열반에 들었다. 월산의 문하에는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큰 두각을 나타낸 많은 사제(師弟)들과 성타(性陀)를 비롯한 34명의 상좌와 혜운(慧運)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 금호문중의 1천명에 가까운 눈푸른 남자들은 선풍진작과 중생제도라는 가풍을 빛내고 있다.⁸⁹⁾

89) 금호대선사, 『금호 태전 법보(金烏太田法譜)』,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마음달, 2010, pp.407-428.

IV.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근현대불교사에서 금오문중의 위상과 성격을 금오와 월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금오는 억불정책으로 일관하였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선맥을 부흥시킨 경허와 그의 법을 이은 만공과 만공의 제자인 보월을 계승하여 선풍을 진작시킨 선승이다. 그는 문도들과 얼마되지 않던 비구승들을 이끌고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만연하게 된 대처승들로부터 비구 승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을 성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화불사가 시작되었던 1954년 5월은 6·25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 민간경제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 당시 비구승들의 수행처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며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반면에 대처승들은 사정이 훨씬 나았다. 농지개혁으로 사찰경제는 파탄이 났지만 그래도 몇몇 대처승들은 사찰재산을 축내며 그런대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승만의 ‘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담화의 파문은 대처승들에게 상상외로 컸지만 그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대처승들로부터 사찰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확보된 사찰을 관리하는 것 또한 어려운 사안이었다. 사찰에서 대처승을 몰아내고 비구승들이 불법을 전파하는 도량으로 일구어 내기까지는 필설로 기술할 수 없는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화불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오와 그의 문도들은 헌신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였다.

금오의 법을 이은 월산 또한 스승을 이어 한국 불교계에 선풍을 진작시키는데 평생을 바친 선승이다.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불국사에 선원을 만들고 수좌들을 받아들인 것은 불교의 생명이 선풍의 계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그들로

하여금 전국과 세계로 나아가서 불법이 만인을 영원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임을 알리도록 하였다. 월산은 법주사·불국사·신흥사·동화사와 같은 본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사찰을 관리하는 일과 불제자들을 제접하는 일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원로회의 의장 등 종단의 주요 직책을 맡아서 불교계의 위상을 강화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금호문중의 만형으로서 역할을 다 하였다. 금호문중 승려들의 치열한 열정은 경허와 만공 그리고 금오와 월산으로 이어지는 덕숭문중을 한국 불교계 제일의 문중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평생을 바쳐 한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는 불교의 대중화를 실천한 보살행이었다.

참고문헌

- <대한불교>, <법보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 강석주·박경훈 공저, 『불교근세백년』, 민족사, 2002
- 金烏 太田, 『金烏集』, 禪學院, 1977.
- 금오대선사,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 마음달, 2010
- 금오선수행연구원 편찬, 『金烏 스님과 佛敎淨化運動』 1·2, 금오선수행연구원, 2008.
- 김광식, 「고불총림과 불교정화」,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5.
- ,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 , 「불교정화운동에 있어서 금오선사의 역할」,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 자료집』,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9.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김경집, 「금오선사의 불교정화운동과 불교사적 의의」,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 자료집』,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9.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김방룡, 「금오선사의 생애와 당시의 불교계」,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 자료집』,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9.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金相斗, 『금오태전 선사연구(金烏太田 禪師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 ,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의 성립과정」, 『인문과학논총』, 22집,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김지건, 「鏡虛禪師再者」, 『德崇禪學』, 한국불교선학연구원, 1999.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제1대 중앙종회 회의록」, 대한불교조계종출판사.
- 만공문도회, 「滿空禪師行狀」, 『滿空法語』, 1982.
-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한국불교현대사』, 시공사, 1997.
- 박해당, 「금오선사의 불교인식과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 자료집』,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9. 26,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

신성현, 「금오의 계율관」,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 자료집』,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9.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신규탁, 「금오 태전의 선사상」,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 자료집』,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9.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오경후, 「鏡虛·滿空의 法脈과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 『동학연구』26, 한국동학학회, 2009.

月山門徒會, 『月山禪師法語集』, 불국사, 1998.

이덕진, 「금오 ‘간화선법’에 대한 고찰」,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 자료집』,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9.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장이두, 「金蓮寺土窟」 14, <해동불교> 1990,

정광호, 『韓國佛教最近世百年史編年』,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종 호, 「금오선사의 심사상 이해」,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회의 자료집』, 금오선수행연구원, 2011. 9. 26,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최병현, 「近代 禪宗의 復興과 鏡虛의 修禪結社」, 『德崇禪學』 창간호, 1999.

漢 巖, 「先師鏡虛和尚行狀」, 『鏡虛集』(『韓國佛教全書』 11, 동국대학교출판부.

Abstract

The status and character of the Geum-o Munjoong(金烏門中)

Kim, Sun-seok

(Senior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In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Buddhism, Geum-o Munjoong(金烏門中 : large fami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everal ways. First, Geum-o Munjoong revived and inherited zen lineage(禪派) which was cut off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policy of suppressing Buddhism during the Joseon Dynasty Seonmaek was revived by Gyeong-heo. The zen lineage of Gyeong-heo was succeeded by Man-gong, and Bo-wel, the disciple of Man-gong, succeeded it. Because Bo-wel died early, he could not deliver the zen lineage to Keum-o, but Man-gong brought the zen lineage to Geum-o and continued it.

Second, through the so-called "the restoration of the purity of the Buddhist world(淨化佛事)" which began in 1954 and ended in the 1970s, Geumo Munjung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tradition of protecting the zen Buddhism and performing proper improvement thus setting an example for the Buddhist community. The Geum-o Munjung produced many attendants and devoted themselves to the projects of propagation and Buddhist popularization, thus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riginal aspect of the victory. Keum-o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promo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Convention of Unmarried Monks(比丘僧) and led the clean-up Buddhist temple. It was a movement to restore the legitimacy of Korean Buddhism, which resisted the response of the monks who married after eating meat and destroyed the genealogy.

Third, Keumomunjung devoted himself to the Buddhist popularization

project. Many 1,000 students, including Geum-o's, Wolsan(月山) and Beom-il(梵日), Beom-hang(梵行), Wolnam(月南), and Tan-sung(吞星) tried to promote Buddhism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Keumo. Such efforts of Keumomunjung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mainstream monks in modern Korean Buddhist history. In addition, it established the practice of the religious group and opened the way for Buddhism to reach out to the public.

Key words

Geum-o Munjoong, Geum-o, Gyeong-heo, Man-gong, Man-gong, Bo-wel, Wolsan, zen lineage(禪脈), the restoration of the purity of the Buddhist world(淨化佛事), Unmarried Monks(比丘僧), monks who married after eating meat(帶妻僧)